

◀ 지난 4일 개관한 시화문화마을 문화관은 금봉미술관과 커뮤니티센터로 구성돼 있다.

## 잠시 가던 길 멈추고... 감·성·충·전

국내 마을공동체 만들기 대표 브랜드 '광주 북구 시화문화마을 문화관' 개관

**벽화·창작시 등 주민이 가꾼 예술마을**  
**91억 투입 미술관·커뮤니티 센터 건립**  
**박행보 화백, 작품·소장품 300점 기증**  
**방문객에 예술 나누고 주민들엔 문화쉼터**



아이들을 위한 예술·체험공간.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지만 쉽지않은 것이 바로 주민 참여다. 주민들이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고, 만들고, 가꾸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참여하는 이들의 애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광주시 북구 '시화(詩畵) 문화마을'은 전국에서 손꼽는 곳이다. 지난 2000년 주민들이 스스로 낙후된 마을을 바꾸기 위해 꽃과 나무를 심은 것이 계기가 돼 시작된 마을 재생 사업이 15년 넘게 이어져 오면서 '시화 문화마을'은 하나의 브랜드가 됐다. 그 중심에는 '시화문화마을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다.

풀뿌리 지역공동체를 통한 국내 대표적인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례로 이름을 알려온 북구 시화(詩畵)문화마을에 최근 대규모 문화공간인 '시화문화마을 문화관'이 문을 열었다.

골목길 가꾸기 사업에서 시작된 문화마을 사업이 마을 전체로 확장됐고, 관이 힘을 보태면서 문화공간까지 마련된 것이다.

지난 6일 찾아간 '시화문화마을'은 말 그대로 시와 그림은 물론 마을 전체에 문화 향기가 흐르고 있었다. 삭막했던 방음벽에는 주민들이 그린 벽화와 아이들의 창작시가 장식돼 있었고, 곳곳에는 페 현수막과 고물 등으로 만든 조각 작품이 놓여 있었다.

'시화문화마을 문화관'(부지면적 1만6268㎡, 건축연면적 1843㎡)은 이런 작품들을 따라 걷다 보면 자연스레 다다르게 된다. 제2순환도로 '문화대교' 아래에 조성된 문화관은 총사업비 91억여 원이 투입됐다. 잘 조성된 공원 위에 금봉미술관과 커뮤니티센터 2동이 마주보고 자리하고 있는 모습이다. 공원에는 아이들을 반기는 조형물이 놓여 있고, 문화대교 뒤편에 있는 각화저수지에서 흐

르는 물길이 문화관까지 이어져 작은 수로와 못을 만들고 있다.

커뮤니티센터는 소규모 동아리방으로 활용될 다용도실, 행사 발표회장 및 공연장, 교육 홍보관, 작은 도서관 등으로 채워져 있다. 지난 4일 개관한 탓에 아직 구체적인 공연과 행사 일정들이 나와있지는 않았지만 공간이 넓어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해보였다.

맞으면 금봉미술관은 금봉 박행보(81) 화백이 북구에 자신의 작품 200여 점과 소장품 91점을 기증한 것이 계기가 됐다. 기증한 소장품 중에는 소년 손재형 선생의 8폭 병풍, 외재 허백련 선생의 작품 등 한국 미술사에 중요한 작품도 포함돼 있다.

외재 허백련 화백을 사사한 박 화백은 시·서·화에 능해 일찍이 국전에서 입선과 특선을 했으며 지난 1973년에는 최고상인 문화공보부장관상을 수상한 지역의 대표적인 원로화가다.

특히 전시관 입구에 걸린 작품이 시선이 머물렀다. 여든이 넘는 화가의 작품에서는 군더더기를 찾아볼 수 없었다. 대담하면서도 간결하게 이어지는 선들은 많은 것들을 함축하고 있었다. 먹물이 흠뻑 번지듯 써내려가다가 마르면서 끊어질 듯 다시 이어지는 필선들이 인상적이었다.

이 미술관 2층에는 금봉 선생의 작업실도 함께 자리하고 있다. 박 화백은 1주일에 3~4일을 머물면서 관람객을 만나거나 작업에 몰두할 계획이다. 앞으로 1층 전시실에서는 국내의 작가의 기획전과 대관전시가 진행되고, 2층 전시실에서는 금봉 선생의 작품들이 교체 전시된다.

이 미술관은 시화마을 금봉문화진흥회가 운영하고, 관장은 시화마을 만들기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해온 작가 이재길씨가 맡

았다. 미술관을 나와 도로변에 조성된 공원을 둘러봤다. 경운기, 폐품을 활용한 아기자기한 조형물, 페 현수막을 활용한 대형 인형, 바람개비 등 작품과 함께 분수대, 물길들이 이어져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사랑받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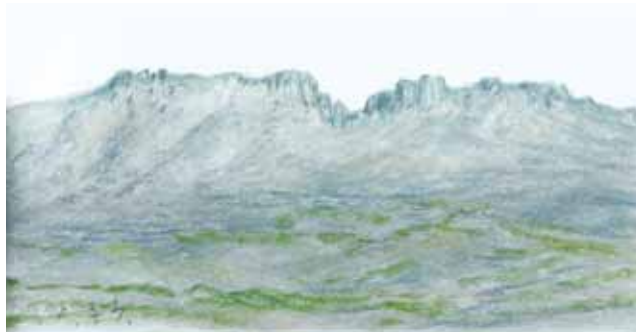
길을 따라 각화 저수지 쪽으로 향하자 다리 밑 공간에 유독 눈에 띄는 빨간 컨테이너 건물이 눈에 들어왔다. 시화마을 주민자치 위원회가 운영하는 아이들을 위한 예술·체험공간이었다. 주말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나와 체험을 하고 있었다. 그 옆으로는 무등산 무릎길 이어지고, 뒤로는 저수가 자리하고 있다. 북구는 각화저수지를 '시상' '사색'을 컨셉으로 한 생태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문의 062-269-9882(금봉미술관).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금봉미술관 전시장 전경.

### 동백매화화첩 펼쳐보기 7월 20일까지 해남 행촌미술관



이종구 작 '달마산 미황사'

행촌문화재단(이사장 김동국) 행촌미술관(해남종합병원 내)은 오는 7월20일까지 '동백매화화첩 펼쳐보기'전을 진행한다.

이번 전시는 지난 3월 해남·강진 일대에서 진행된 동백매화답사에 참여한 민정기, 서용선, 윤석남, 이종구, 육근병, 이이남, 허진, 윤남웅 등 30여명의 예술가들이 현장에서 제작한 드로잉 작품 700여점이 전시된다.

이들은 해남 문내면 임하도를 시작으로 산이면 매실농원, 미황사, 녹우당, 강진 백련사, 대흥사, 진도 윤림산방 등을 답사하고

동백과 매화가 흐드러진 남도의 풍광과 사람, 음식 등을 각자의 개성과 감성으로 담았다. 빠르면서도 감각적으로 그려내는 드로잉은 작가의 회화적 기량을 그대로 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면의 무의식을 느끼게 해준다.

한편 이번 전시가 끝나고 오는 7월24일부터는 36명의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풍류남도 전시가 행촌미술관, 미황사, 백련사, 대흥사, 임하도 이마도작업실 등 해남강진 일원에서 8월3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 061-530-0114. /김경인기자 kki@

### 광주비엔날레 예술총감독 30일 발표

'2016 광주비엔날레' 예술총감독이 오는 30일 발표된다. 광주비엔날레재단은 오는 30일 이사회 최종 승인을 거쳐 예술총감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2016 광주비엔날레' 예술총감독은 국내외 전문가들로 구성된 '예술총감독 선정을 위한 국제자문위원회'를 거쳐 최종 2명의 후보로 압축됐다. 오는 29일 '예술총감독 소위원회'의 면접을 거쳐 30일 이사회에 상정된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연회장

세미나

가족모임

상견례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각종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이태리가구**

**명품소파**

**던롭침대**

**가구빌딩**

**홍스케이스** SINCE 1990    www.hong79.com    신상품 매주 입고    광주 동구 장동 58-15    ☎1899-0240